

출제 의도

Part I에서는 인간의 말을 다루는 영문 제시문 하나와 인간의 글을 다루는 한글 제시문 하나를 바탕으로 [문제 1]과 [문제 2]가 주어진다.

[문제 1]에서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글에 대한 말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영문 텍스트 <제시문 1>과 근대 이후 독서 문화의 발달을 서술한 국문 텍스트 <제시문 2>를 제시하고 두 텍스트의 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글을 보고자 하였다. 다양한 텍스트를 읽고 요지나 주제를 파악하는 능력은 대학에서 학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자질이기 때문이다.

[문제 2]에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텍스트를 대비하거나 교차하면서 적절히 비판하고 평가할 수 있는가를 보려고 하였다.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과 방법은 다양할 수 있는데 서로 다른 관점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능력은 사고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타자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관점들을 논리적으로 적절히 비판하고 평가하는 능력은 대학에서 학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문항 해설

① <제시문 1>의 한국어 번역

플라톤은 그의 “제 7서한”에서 문자 텍스트는 대화를 대신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가치 있는 문제를 다루는 귀한 사람은 자신들의 생각을 문자화함으로써 다른 사람으로부터 불쾌한 감정을 자아내고 오해를 사는 일을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철학론을 저술한 자신의 제자이자 시라쿠스의 왕인 디오니수스를 비판한 것이다. 플라톤의 주장에 따르면 기록된 문자만으로는 철학적인 진리가 이해되는 섬광과 같은 통찰을 전달할 수가 없다. 소크라테스와 마찬가지로 플라톤은 대화를 통해서 진리에 이르는 문답법을 선호했다. “선의를 가지고 문답법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면밀한 탐구와 친절한 시험을 진행하는 동안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섬광처럼 이해력이 빛을 발하는 법이다.”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은 정신 경험의 상징이고 문자는 말의 상징이다”라고 믿었는데, 이 또한 말이 글보다 우월하다는 그리스인들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다.

② <제시문 1>에서는 글보다는 말의 우월성을 주장하고 있는 플라톤과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③ <제시문 2>에서는 근대 이후 서양과 우리나라에서 책의 대량 출판이 가능해지면서 독서 문화가 이전과는 전면적으로 달라졌음을 제시하고 있다. 그 결과 독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상과 교양을 얻기 위한 중요한 방편이 되었고 일상생활과 취미의 영역으로 자리 잡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내용적 측면]

① 한국외대의 중요한 키워드들 중 하나인 문화(cultural studies)와 언어(language studies)를 소재로 한 텍스트들을 바탕으로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지문들을 활용하였다.

② 통합논술의 취지인 통합적 통찰 능력 및 인식능력의 함양, 통합적 비판 능력과 판단능력 고양, 전문인으로서 적합한 통합적 탐구 능력과 통합적 적성 개발, 올바른 가치관 정립, 정보화 시대의 통합적 정보취득 역량 함양, 논리적이면서도 창의적인 표현 능력 개발을 고려하여 자료를 선정하였다.

③ 고전과 현대 중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텍스트를 적절히 선정하였다.

④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을 중심으로 텍스트를 선정하여 문제들을 출제하였다.

⑤ 대학 학습 능력의 기본이 되는 요지파악, 비판 평가에 중점을 두고 출제하였다.

[형식적 측면]

① Part I 은 영문 자료 하나와 국문 자료 하나로 구성하였다.

② [문제1]은 주어진 영문 자료와 국문 자료의 요지를 각각 서술하도록 하였다.

③ [문제2]는 비판 능력 평가를 위해 <제시문 1>의 입장에서 <제시문 2>의 내용을 비판 서술하도록 하였다. 하여 고등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지문과 자연과학의 지문을 활용하였다.

채점 기준	하위문항	채점 기준	배점
	Part I 문제 1	<p><<제시문 1>의 요지와 <제시문 2>의 요지 서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문 1>의 경우, 영어 지문을 읽고 요지 파악 능력을 평가 •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등의 철학자들은 글보다는 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는 요지 파악 능력 평가 (50점) • 예시 답안의 전반부 참조 • <제시문 2>의 경우, 국문 지문을 읽고 요지 파악 능력을 평가 • 근대 이후에 책이 대량으로 보급되면서 독서 문화가 바뀌게 되었다는 요지 파악 능력 평가 (50점) • 예시 답안의 후반부 참조 • Key Word <제시문 1>: 말, 글, 플라톤, 대화, 아리스토텔레스, 고대철학자 <제시문 2>: 근대, 독서 문화, 대량인쇄, 개인의 사상과 교양, 문자 <p><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 처리함. 	100점
	Part I 문제 2	<p><<제시문 1>의 논지를 바탕으로 <제시문 2>의 논지를 비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문 1>과 <제시문 2>가 말과 글에 대해 서로 상반된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있는지 평가 (100점) • 글보다는 말의 중요성을 강조한 고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등의 철학자들의 관점에서 근대 이후 변화된 독서 문화의 특징을 세부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지 평가 (110점) • 문자 텍스트가 말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제시문 1>의 관점에서 독서에 대해 비판적으로 기술하고 있는지 평가 • 문자 텍스트가 말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제시문 1>의 주장에서 볼 때 개인적인 독서를 통해 형성된 내면의식이 진정한 교양을 높이는 것과는 관련이 없을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지 평가 <p><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 처리함. 	210점

[문제 1]

등급	기준	
A	A+	• <제시문 1>의 요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그리스 철학자들은 말을 글보다 중시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
	A0	• <제시문 2>의 요지: 근대 이후 독서 문화의 변화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였으며 개인의 내면의식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
	A-	• <제시문 1>의 요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그리스 철학자들은 말을 글보다 중시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
B	B+	• <제시문 1>과 <제시문 2>의 핵심어는 각각 제시하였으나 <제시문 1>의 요지나 <제시문 2>의 요지를 불충분하거나 명료하지 않게 기술한 경우
	B0	
	B-	
C	• <제시문 1>과 <제시문 2>의 핵심어도 각각 제시하지 못하고 <제시문 1>의 요지와 <제시문 2>의 요지를 불충분하거나 명료하지 않게 기술한 경우	
D	• 일부 관련된 내용을 서술했지만, 전체적으로 내용이 유의미하지 않은 경우	
F	•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서술한 경우.	

※ 논술고사 결시자, 부정행위자 및 4문제 모두 F를 받은 응시자는 논술고사 성적을 최저점(0점)으로 처리

[문제 2]

등급		기준
A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대 이후 독서의 대중화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였고 개인의 내면의식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주었지만 글보다 말을 중시했던 고대 철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현대 독서는 사회적 경험과 공동체적 삶의 방식을 해칠 위험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
	A0	
	A-	
B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문 1>의 내용을 충분히 활용하였으나 <제시문 2>에 대한 비판이 충실하지 못한 경우 • <제시문 2>에 대한 비판은 충실하게 이루어졌으나 <제시문 1>의 내용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경우
	B0	
	B-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문 1>의 내용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고 <제시문 2>에 대한 비판도 충실하지 못한 경우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관련된 내용을 서술했지만, 전체적으로 내용이 유의미하지 않은 경우 	
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서술한 경우. 	

※ 논술고사 결시자, 부정행위자 및 4문제 모두 F를 받은 응시자는 논술고사 성적을 최저점(0점)으로 처리